

때 묻지 않은 비밀의 정원... 걸음이 절로, 詩心이 절로

숨겨진 힐링 명소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백운동 정원 답사 코스



무위사 안운마을 백운동정원 월출산다원 이한영생가 월남사지 달빛한옥마을

전남 강진에 가면 여행자에게 짐을 주며 걷는 길이 있다.

월출산 남쪽자락 널따란 차밭 아래 아껴둔, 백운동 별서정원. 백운동 정원은 담양의 소쇄원, 완도 보길도의 부용동과 함께 이른바 '호남의 3대 정원'으로 꼽힌다.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개 돼 구름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백운동은 아직 덜 다듬어진 복원이 되려 애스럽다.

백운동 정원 안팎은 찾는 이들의 시심을 자극할 정도로 자연과 맞닿아 있다. 수백년 수령의 아름드리 나무들과 이들을 끼고 있는 계곡은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 정도로, 대낮에도 어스름이 깔려 있다. 담벼락을 파고든 고목은 백운동 별서정원의 세월을 짐작하게 한다.

◇정약용 시심 자극...풍광 시로 쓰고, 그림으로 그린 백운동 탄생=때는 1812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초의선사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월출산을 오른 뒤 백운동의 절경에 반했다. 하룻밤을 묵은 후 백운동의 풍광을 시로 쓰고 그림으로 그린 시첩이 '백운동'이다.

시첩은 백운동도와 서시, 백운동 12경, 발문, 다산초당도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산과 초의선사, 다산의 제자 운동이 각각 8수, 3수, 1수로 백운동 12경을 읊었다.

제목만이라도 들여다보자.

'옥판봉'(월출산 구정봉의 서남쪽 봉우리의 이름), '산다경'(별서정원에 들어가는 동백나무(별정 山茶) 숲의 작은 길), '백매오'(바위언덕(塹) 위에 심어둔 백그루의 홍매), '홍옥폭'(단풍나무 빛이 비친 폭포의 홍옥같은 물방울), '유상곡수'(流觴曲水·잔(觴)을 띄워 보낼 수 있는 아홉 굽이의 작은 물길), '창하벽'(붉은색의 글자가 있는 푸른빛 절벽), '정유강'(용 비늘처럼 생긴 붉은 소나무가 있는 언덕), '모란제'(모란이 심어져 있는 돌계단의 화단), '취미선방'(산하리에 있는 꾸밈없고 고즈넉한 작은 방), '풍단'(창하벽 위에 붉게 물든 단풍나무가 심어진 단), '정선대'(선선이 머물렀다는 옥판봉이 보이는 창하벽 위의 정자), '운당원'(별서 뒤편 늪스럽게 하늘로 솟은 왕대나무 숲)이다.

다산의 흔적이 깃든 백운동 계곡 생태탐방로는 오래된 나무에 대한 외과수술 및 가지 정리, 대나무 간벌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보다 완벽하게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다.

오는 2018년까지 국비 포함 8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강진군 관광개발사업 진행되고 있다. 생태공원과 12경을 복원하고 백운동 전시관, 관련 시설을 만든다.

◇강진 대표 명소의 한가운데 서 있는 백운동 정원=백운동

다산 흔적 깃든 생태탐방로

'호남의 3대 정원'으로 꼽혀

무위사~백운동~달빛한옥마을

4km 쉬엄쉬엄 걸으며 활력 충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명소



월남사 옛터, 월남사지는 고려 진각국사 해심이 중건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폐장됐다. 보물 313호인 진각국사비와 보물 298호인 삼층석탑이 옛 이야기를 들려줄 듯 말 듯 하다. 삼층석탑은 높이가 7m에 이른다. 돌을 깎아 벽돌처럼 만든 다음 쌓아 올렸다. 공력을 짐작하기 어렵다.

월남사지를 거쳐 마을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달빛한옥마을에 도착한다.

월출산의 비경과 한옥마을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는 이곳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사진찍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정돈된 서른 채의 집들을 둘러보면 '하룻밤 더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월출산권 트레일코스는 무위사를 시작으로 백운동 정원, 월출산 강진다원, 이한영생가, 월남사지를 경유해 달빛한옥마을에 도착하는 4km의 걷는 길이다. 강진군은 월출산권역의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트레일 코스를 조성해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월출산 자락 아래로 이어지는 강진 트레일 코스중 단연 백미는 백운동 별서정원"이라면서 "그동안 아껴둔 호남 최고의 정원에서 지난 폭염을 씻고 최고의 여행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정원을 중심으로 인근 명소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천년고찰 무위사는 1962년 국보 제13호로 지정된 극락보전이 있다.

극락보전 안에 그려진 아마타여래 삼존벽화는 2001년 7월 국보 313호로 지정됐다. 이 벽화는 호화찬란한 고려 불화의 영향과 조선초기의 새로운 수법이 표현된 걸작이다. 국내에 현존하는 조선조 아마타불도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오래됐다.

비밀의 정원 백운동을 뒤로 하고 거슬러 올라오면 널따란 차밭이 나온다. 강진다원이다. 한국 제다업계의 선두주자인 '태평양다원'이 운영하는 차밭이다. 면적이 무려 33.3ha에 이른다. 부드러운 곡선과 사계절 푸름이 돋보인다. 월출산의 솟아오른 바위들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우리가 흔히 설록차라고 부르는 차가 여기서 생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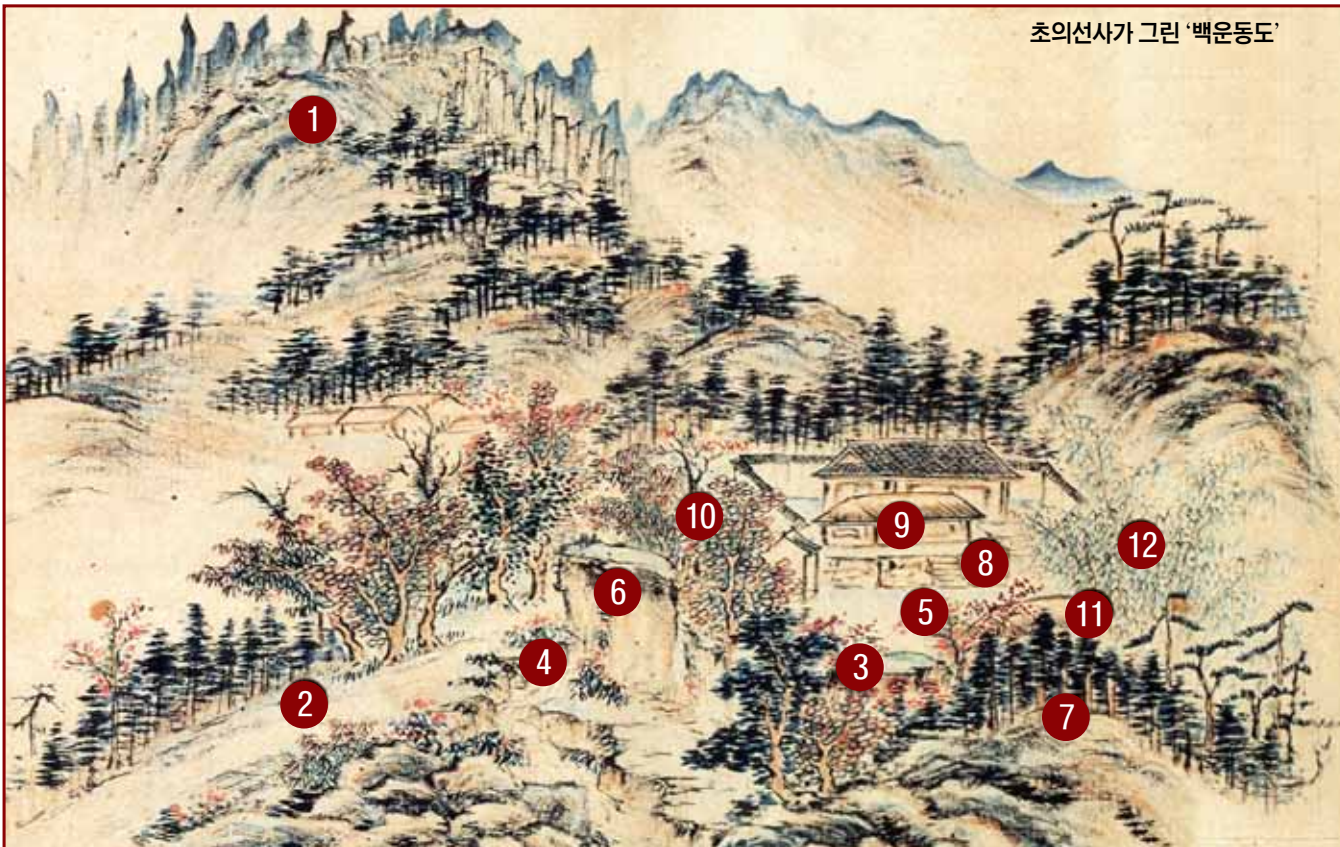
이한영 생가는 지난 2010년 원형 그대로 복원돼 있다. 이한영 선생은 다산과 초의선사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차 역사의 맥을 이어온 대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녹차 상표인 '백운옥판차'는 성전면 월하리 백운동에 있는 '옥판산의 차'라는 의미다.



'호남의 3대 정원' 중 하나로 꼽히는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이 힐링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강진군 제공>

여기가 백운동 12경 단풍 빛 비친 물방울 '홍옥폭'...바위언덕 위 백그루 홍매 '백매오'



- | | | | |
|---|---|--|---|
| 1 제1경: 옥판봉(玉版峰)
월출산 구정봉의 서남쪽 봉우리 이름 | 2 제2경: 산다경(山茶徑)
별서정원에 들어가는 동백나무 숲의 작은 길 | 3 제3경: 백매오(百梅塹)
바위언덕 위에 심어둔 백그루의 홍매 | 4 제4경: 홍옥폭(紅玉瀑)
단풍나무 빛이 비친 폭포의 홍옥같은 물방울 |
| 5 제5경: 유상곡수(流觴曲水)
잔을 띄워 보낼 수 있는 아홉굽이 작은 물길 | 6 제6경: 창하벽(蒼霞壁)
붉은색의 글자가 있는 푸른빛 절벽 | 7 제7경: 정유강(貞莸岡)
용 비늘처럼 생긴 붉은 소나무가 있는 언덕 | 8 제8경: 모란제(牡丹砌)
모란이 심어져 있는 돌계단의 화단 |
| 9 제9경: 취미선방(翠微禪房)
산하리에 있는 꾸밈없고 고즈넉한 작은 방 | 10 제10경: 풍단(楓壇)
창하벽 위에 붉게 물든 단풍나무가 심어진 단 | 11 제11경: 정선대(停仙臺)
선선이 머물렀다는 옥판봉이 보이는 정자 | 12 제12경: 운당원(雲堂園)
별서 뒤편 늪스럽게 하늘로 솟은 왕대나무 숲 |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